

## 인/사/말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추위에 봄이 오지 않을 듯하더니 3월의 문턱에 들어서자 완전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먼저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부족한 제가 지난 1년간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는 지난 1990년에 소수의 관심있는 선배 교수님들의 모임으로 정위기능 분야에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연구회로 시작된 이래 현재 150명 이상의 정회원이 참여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중요한 분과학회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정위기능신경외과는 과거에는 신경외과 분야의 불모지로 생각되기도 하고 낯설고 어렵다는 선입관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학문이었으나, 최근에는 신경외과에서 가장 최첨단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주된 연구 분야인 운동이상, 통증, 간질, 방사선수술 외에도 최근에는 줄기세포, 자동항법 수술, 인공지능 로봇 수술, 신경조절분야 등이 활성화되면서 정위기능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뉴 밀레니움 시대에 걸맞는 특성화된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2008년도 제14차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는 저의 스웨덴 유학시절 은사님 이셨던 방사선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신 Christer Linquist 교수님과 통증분야의 석학이신 Russell Andres 교수님의 초청강의를 준비했으며, 최근 신경외과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Brain mapping과 Stem cell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국내 초청연자 두 분의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제가 늘 강조한 “기본에 충실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2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임영진